



# 국제리뷰

- 캘리포니아주의 성매매 방지정책과 한인여성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베트남 여성정책의 현황과 이슈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 인프라 강화 사업 (III) 수요조사 방문을 중심으로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미국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여성계의 노력

이춘아 | 한밭문화마당 대표

# 캘리포니아주의 성매매 방지정책과 한인여성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 미 연방 국회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고(prevention) 피해자를 보호하면서(protection)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prosecution)하고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비 시민권자와 비 영주권자인 피해자들도 연방정부로부터 다양한 도움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해자들을 위한 “T” 비자와 “U” 비자가 신설되었다(Harris, 2012). 이러한 비자는 체류신분이 발각되면 추방될 것을 우려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경찰 신고를 기피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발급되는 “T”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미국에서 5년간 일하면서 지낼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4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6명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T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2003년, 2005년, 2008년에 각각 재정립되었으며 연방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사건에 한해서 적용된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반 인신매매 단체(President Obama’s Anti-Trafficking Initiative)를 조직하여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인신매매 수사에 대한 지침서 및 교육을 제공 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렸으며 대통령령을 통해서 공급자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였다(The White House, 2012. 9. 25).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주로 미국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가장 많은 네 개의 주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전 지역에서 인신매매 관련 피해신고 전화와 문자를 접수하는 국가 인신매매 자원센터(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 중 캘리포니아에서 걸려온 전화가 약 10%로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고 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 캘리포니아 국회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Californi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을 통과시킴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연방법과는 다른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인신매매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 미성년자인 경우 징역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연방법의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의 처벌 기준인 최대 15년과 비교했을 때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반 인신매매 연합(California Alliance to Combat Trafficking and Slavery)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처벌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의회는 2012년 11월 캘리포니아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처벌법(Californians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성착취적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인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혹은 단순히 인신매매 범죄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매춘법(pimping law) 등의 다른 조항을 이용해서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근래 가장 규모가 컸던 성착취적 인신매매 관련 사건은 2005년의 (인신매매피해자 구출 작전(Operation Gilded Cage) 사건이었다. 연방경찰은 Operation Gilded Cage라는 비밀작전을 수행해 LA와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기습 단속해 대규모 성매매 조직을 적발하였다. 당시 한인 40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체포되었고 이들의 감시 하에서 매춘 활동을 해온 100여명의 한인 여성이 구출되었다. 이후 한인사회에서 쏟아진 비난과 부정적인 시각이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더욱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구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이후에도 성착취적 인신매매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찰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미국 내의 한인 대상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간의 협력을 통한 적절한 피해자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http://oag.ca.gov/human-trafficking>

Californians Against Sexual Exploitation(CASE Act): <http://www.caseact.org/learn/law/>

San Francisco Collaborative Against Human Trafficking: <http://www.sf-hrc.org/index.aspx?page=175>

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 <http://sagesf.org/>

Asian Women's Shelter: <http://www.sfaws.org/>

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 <http://www.apilegaloutreach.org/trafficking.html>

San Francisco Chronicle: <http://www.sfgate.com/>

The White House: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2/09/25/fact-sheet-obama-administration-announces-efforts-combat-human-trafficking>

# 베트남 여성정책의 현황과 이슈 :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 (Ⅲ) 수요조사 방문을 중심으로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Ⅲ)』은 다양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여성정책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국가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일반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2014 신규 대상 국가로 베트남과 미얀마가 선정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팀에서는 지난 4월에 베트남 하노이시를 방문하여 현지 여성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문하면서 하노이시의 정부, 학계, NGO, 국제기구 등 유관 기관 11곳에 수요조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정책실무자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의 여성정책 현황과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고는 현재 베트남 여성 정책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방문 기관을 소개하면서 방문을 통해 파악한 시사점을 간략하게 기술하려고 한다.

## 베트남 여성정책의 전반적 상황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은 가족의 안녕과 평화를, 남성은 지도자의 역할과 사회활동을 맡는다는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현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해졌으나, 아직까지 가부장적 가치관과 남아선호사상이 널리 퍼져있고 가족 간 유대감이 강하며 웃어른, 부모나 조상을 존중하는 풍습이 강하다. 뚜렷한 성역할 구분과 남성들의 저조한 가사참여로 인해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정책들이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도의 혼인가족법(Law on Marriage and Family)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양성평등법(Law on Gender Equality)이 제정되었다. 양성평등법은 1992년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사회와 가정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2007년에는 가정폭력방지법(Law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고, 처벌대상이 명확해졌으며 방지 방안 또한 대두되었다. 2011년에는 인신매매 철폐 및 방지법(Law on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nd Combat 또는 Anti-trafficking Law)이 제정되었다. 이전에도 인신매매방지과 관련한 국가행동계획은 존재하였지만, 2011년에 최초로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법제화 이외에도 베트남은 국가 차원의 여성관련 전략들을 수립, 실행하여 오고 있다. 베트남은 2001년부터 국가여성발전전략 2001-2010(National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Vietnam by 2010)을 수립하여 왔는데, 이는 베트남 여성정책의 근간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역할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본 권리에 대한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양성평등법 제정 이후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차원의 정책문서가 마련되었다. 2010년에는 10개년 국가양성평등전략(National Strategy on Gender Equality 2011-2020, NSGE)이 수립되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7개의 목표와 22개의 세부 목표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 2011-2015(National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for the period 2011-2015)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처음으로 정부가 젠더프로그램에 5년간 USD 4천6백만달러를 배정했다는 점과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GAD) 개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UN Women, 2011: 1).

베트남 사회 여러 영역에서의 여성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수치만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베트남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500명중 122명으로 24.4%이며 이는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 Union: IPU)에 따르면 세계 189개국중 49위로 높은편이다.<sup>1)</sup> 하지만 11대 국회(2002-2007) 여성 국회의원 비율 27.3%, 12대 국회(2007-2011) 25.8%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 그 비율이 감소세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 또한 74%(남성 81%)로 아시아 1위, 세계 13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성의 남성에 대한 소득 비율은 0.69로 세계 33위이다(Hausmann 외, 2012: 44-46). 현재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장 핫이슈는 여성과 남성의 정년퇴직 연령의 차이이다. 베트남 노동법(Labour Code)은 남녀 고용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노동법 상의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되어 있다. 현재 퇴직 연령의 수정에 대한 국제사회와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성 인권 측면에서는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이슈이다. 과거 베트남에서는 가정폭력이 가족 내 사적인 일이며, 여성이 견디어 내야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가치관이 널리 퍼져있었다. 따라서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이 신고를 하거나 외부에 알리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2007년

1) 국제의원연맹의 2013년 4월 1일 통계기준(공동순위 국가 있음). 베트남의 경우 2011년 5월 선출된 13대 국회를 기준으로 하며 <http://www.ipu.org/wmn-e/classif.htm> 참조(접속일: 2013년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법(Law o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이 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가 점차 사회 이슈화되었고, 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해지게 되었다. 인권 분야에서의 다른 이슈로는 해외이주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확대되는 이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

## 방문기관 소개

이번 하노이 방문에서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 국제기구등 총 11개의 단체와의 면담이 이루어 졌다. 이 중 대표적인 기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노동사회보훈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내 양성평등국(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베트남의 여성정책은 노동사회보훈부(MOLISA)가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양성평등국이 설립되어 양성평등법, 정책 이행에 대한 실태연구 및 제언을 담당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양성평등국의 업무로는 연간 양성평등 정책이행계획 수립과 추진, 양성평등 교육, 젠더관련 전략 모니터링, 젠더통계구축, 양성평등관련 보고서 발간, 국제기구와의 젠더프로젝트 이행 등이 있으며 현재 약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양성평등국에는 국가여성발전위원회(NCFAW)의 사무국이 소속되어 있는데, NCFAW 회의는 정례적으로 1년에 2회 개최되며 위원은 각계 각 부처의 장, 차관급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가정폭력법의 실행은 양성평등국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내 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베트남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 VWU)

베트남여성연맹은 현재 1500만명의 베트남여성이 가입한 대중조직으로서 중앙에서부터 풀뿌리차원에 이르는 전국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하노이 베트남여성연맹 하노이 센터에는 약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방(province)여성연맹에는 각 20-30명(지방 사무소 약 60개), 지역연맹(district)에는 약 5명 (지역 사무소 약 700여개), 읍/면(commune)에는 총 11,000여명, 마을(village)차원에는 총 12만명 정도의 여성 지도자 및 회원들이 연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맹은 정치, 법률, 국제관계 업무를 특화된 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베트남 여성발전센터, 베트남 여성아카데미 등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여성연맹이 운영하는 베트남여성아카데미(Vietnam Women's Academy, VWA)는 1960년 설립된 중앙여성연수학교(Central Women's Training School)가 2012년 총리실 승인으로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승격된 것이다. 베트남여성연맹은 국회의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되나, 국회산하 기관은 아니며, 독립적인 정부 출연기관이다.

### Institute for Family and Gender Studies (IFGS) 베트남여성가족연구소

IFGS는 총 6개의 연구부서와 1개의 행정 및 저널출판담당 부서, 과학위원회(Science Committee)를 갖춘 정부산하 베트남사회과학원(VASS) 소속 연구기관으로 본원과는 2008년 MOU를 체결한 협력기관이다. 연구부서로는 가족연구부, 아동연구부, 여성연구부, 양성평등연구부, 거시정책연구부, 인사 및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약 36여명의 연구자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IFGS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IFGS는 연구결과물과 보고서를 정부 혹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보고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시행한다. 둘째, 연구출판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정책 입안과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셋째, 연구진은 전문분야 관련 각종 회의, 세미나, 강의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Journal of Family and Gender Studies 이라는 연구저널(베트남어)과 Vietnam Journal of Family and Gender Studies 연구저널(영어)을 발간하고 있다.

### ULSA(Universit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ULSA)

ULSA는 앞서 소개한 베트남 MOLISA(노동사회보훈부)의 산하기관으로, 1961년에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년에는 3년제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현재 사회복지, 회계, 노무관리 등 총 6개의 학부(faculty)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사,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박사과정은 계획 단계이다. 베트남 내 3개의 캠퍼스에 총 800여명의 강사와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학생 수는 1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졸업생들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여성 및 사회문제 관련 NGO, 연구원 등에 진출하고 있다.

ULSA는 젠더 분야에서 강의, 연구 및 출판, 양성평등 연수 업무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강의 관련해서는 사회복지학과에 젠더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매년 입학하는 약 250-300여명의 신입생에게 젠더와 개발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이외에도 모든 학과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을 통합하여 강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ULSA는 강의 이외에도 가정폭력관련 여성, 인신매매와 여성 등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물을 정부에 제언하기도 한다. 이 대학은 국제기구와도 활발히 협력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ILO의 지원을 받아 '젠더와 개발'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ULSA는 또한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ULSA의 교수진들은 중앙, 지방 정부 모두 아직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정보와 소통이 부족한 것과 실제 양성평등법은 있으나 모니터링 체제와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것을 문제로 꼽았으며, 향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노하우 공유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Center for Education Promotion and Empowerment of Women (CEPEW)

1997년에 설립된 CEPEW에는 현재 6명의 정직원과 5-6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CEPEW는 시민사회의 기반이 매우 약한 베트남의 몇 안 되는 젠더관련 NGO라고 할 수 있다. Ms. Vuong Thi Hanh CEPEW 대표는 CEPEW설립 이전 교육부(MOET), 베트남여성연맹(VWU) (11년) 등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했던 여성 전문가이다. CEPEW의 설립 목적은 경제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특히 소수민족 여성)을 확대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및 여성의 권리 보호 활동 또한 수행하고 있다.

CEPEW는 현재 베트남 전 지역의 20개 주 (province)에서 1-2년 단위의 단기 프로젝트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MOLISA 혹은 지방 여성연맹(WU)와 같이 진행하기도 하지만 CEPEW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도자양성연수(TOT)를 실시하고 있다. MOLISA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MOLISA가 주관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탁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UNDP, 베트남여성연맹, National Committee on Social Welfare, 문화체육부의 워크샵에도 참가하고 있다.

## 시사점

이번 수요조사 방문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현황과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베트남 여성정책에 있어서 법, 제도 체제는 이미 정비되어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행 부진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유관 부처의 양성평등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양성평등 정책 수행을 위한 인력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양성평등 관련법 실행 미비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양성평등에 있어서의 사회전반에 걸친 인지도 부족을 들 수 있다. 면담자들은 베트남 사회의 뿌리 깊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사노동 분담 등 양성평등의 실행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부재와 옹호 활동에의 제약이 양성평등 인식확산을 가로막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여성관련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베트남 여성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분야는 법과 제도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를 위한 인력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성인지 예산과 같은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법집행 및 정책 실행에 있어 한국의 유사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 여성 정책 관련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베트남의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여성계의 노력

이 춘 아 | 한밭문화마당 대표

## 미국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

미국여성사박물관은 1996년 단체형태로 발족되었으나, 지금까지 온라인형태로 존재해왔다. 박물관 건립을 위해 워싱턴 내셔널 몰 지역에 박물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한 모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여성사박물관의 영문표기는 National Women's History Museum 이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식의 국립이 아니며, 미국 전국을 커버하는 규모임을 강조하는 단체로서 성격이 크다. 그러나 그 영향력과 지지도는 커서 상하원에서 여성사박물관 부지확보를 위해 법안을 여러 차례 상정하였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부결되는 과정을 거쳤다. 부결사유는 낙태 등 여성쟁점과 결부된 거부반응과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법안 통과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박물관과 여성계에서 워싱턴 내셔널 몰내에 부지를 마련하고자하는 방침 때문인데, 내셔널 몰에서 벗어날 경우 관람객 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도 있고 내셔널 몰 내에 여성사박물관이 있어야한다는 위치상의 상징성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여성사박물관 건립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그들이 미국여성사박물관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상징성을 고수하고자하는 끈질긴 노력이다. 힘든 여정이긴 하지만 법안통과를 통해 부지는 국가가 마련하고 건축은 박물관측의 후원금으로 건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바로 비슷한 시기에 노력해온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흑인박물관 역시 20여년 넘게 노력해왔고, 2003년에 내셔널 몰에 부지확정법안을 통과시켰고, 계속 모금을 하여 2012년 기공식, 2015년 완공예정이다.

## 박물관 건립 법안 통과를 위한 여성계와의 연대

미국여성사박물관측은 미국 상원과 하원의 여성의원들을 독려하여 부지마련을 위한 법안 통과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는 미국여성참정권운동을 했던 여성들을 기리는 조각상(1919~20년 사이에 Adelaide Johson이라는 여성조각가가 만들었음)이 국회의사당 지하에 있었는데, 지난 20여년간 조각상을 국회의사당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건립에의 의지도 생겼고, 로비리스트인 현재의 Joan Wages 회장이 동참하게 되면서 1997년에 성공하여 여성계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각종 행사 홍보, 편지보내기, 모금행사 등 프로젝트별로 도와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변인을 찾다가 세계적인 여배우 메릴 스트립에게 편지를 보내어 홍보대사로 유치하게 되었다. 스트립은 많은 후원금을 낼 뿐 아니라, 다른 여배우들도 동참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이벤트 모금, TV 광고, 방송국 행사 등에 참여하며 영부인과 그 딸들에게도 연락하여 박물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주었다.

미국도 남녀분리된 여성운동에 예민해져있어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이 남성과 여성을 파트너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앞으로 90년 이후에나 남녀 구분 없이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여성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교육효과가 여성역사박물관의 주요기능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렵게 진척되어온 박물관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다가 수차례 폐기되긴 했지만,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여성들(국회의원, 박물관 회원, 여성단체)의 조직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성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요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240여 회원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활동목표에 박물관 법안통과 지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전화만 하면 도와주고 건기대회라도 열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의향을 갖고 있으며 전화해 주기, 편지하기, 회원단체에 홍보하기 등 협조하고 있다. 협의회의 스칸란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면서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박물관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활동은 여성단체가, 모금활동은 박물관에서 하는 역할분담으로 협력 체제를 갖고 있으며,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여성국회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협의회를 대표하는 열명의 회원이 백악관에 초청되어 미셸 오바마 영부인을 만났을 때도 열 명이 한 목소리를 내어 미국여성역사박물관을 만드는데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영부인의 지지를 얻어내기도 했다.

국회의사당 옆 상원의원회관 주차장 부지에 여성참정권 운동을 벌였던 여성이 살았던 집이 있다(Sewall Belmont). 박물관 형태로 되어 있는 그곳을 의원회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했을 때, 여성단체와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협력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이곳은 평소 모임도 하고 결혼식도 하기도 하는데, 올해 처음 여성 상원의원 20명이 모이기도 한 상징성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 여성운동 차원에서 여성사박물관 건립의 당위성

스칸란 미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할머니 대에서부터 워싱턴에서 살았는데, 그동안 내셔널 몰로 무수히 소품을 다녔지만 링컨 모자, 워싱턴의 틀니 등의 남성 유물을 보았을 뿐 여성의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여성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은 없었다는 것. 박물관 수학여행을 다니면서 여성들은 나라를 위해 한 일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학생들은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어 왔을 것이다.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을 알고는 있지만, 이들의 존재를 직접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스칸란 회장은 회고했다.

스칸란 회장은 역사박물관은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해왔던 것을 알릴 수 있는데, 같은 콘텐츠이지만 이왕이면 여성의 역사적 기여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였고, 현재, 미래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도 담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물관의 최고 목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능일 것이다. 예컨대 여성법률가들이 여성운동의 덕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의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한데 여성역사박물관에 여성운동의 역사를 담아 교육을 하였으면 한다고 전한다.

## 여성사박물관의 의의

미국여성사박물관 건립과 여성운동은 같은 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보여주는 각종 활동과 국회 로비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역사의 확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여성의식 교육을 박물관을 통해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법안 통과와 모금활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박물관을 통한 새로운 여성교육의 시도** : 한국의 경우도 (가칭)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과정을 통해 첫째, 여성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부각시켜나갈 수 있는 교육기능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우선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여성단체들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여성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역사와 문화를 포함하는 박물관** : 한국의 경우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할 경우, 여성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겠지만, 여성들의 문화적 성취, 업적물을 포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물관의 기능상 예술적 이미지의 전시개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흑인 역사문화박물관의 역사와 문화를 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국의 여성역사박물관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현재 한국내 여성박물관들이 여성들의 문화적 산물인 수공예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 **박물관 봉사자 활성화** : 미국여성역사박물관, 미국여성예술가박물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봉사자 활용방안도 한 영역으로 포함하였으면 하는데, 이는 여성들의 전문인력 활용과 인력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건축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도입** : 미국흑인역사문화박물관은 21세기 뮤지엄으로서 창조와 혁신, 기술을 도입한 최첨단의 환경박물관 Green Museum임에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국립여성역사 박물관도 건축 또는 리모델링 냉난방을 비롯하여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이어야 할 것임을 제안해본다.